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다시 읽는 <심청전>^{*}

- 영화 <코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경하^{**}

- I. 연구의 필요성
- II.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영화 <코다> 분석
- III. 보호자로서의 심청과 장애인의 자립
- IV. 희생 다시보기와 결말의 환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에 집중해 <심청전>을 분석했다. 심청의 ‘이효상호(以孝傷孝)’로 그것이 진짜 효인가 묻기는 하지만, 장애인 보호자로서의 심청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없다. 판소리계 고전소설 <심청전>에 나타난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를 집중 분석하기 위해, 영화 <코다>(2021)를 비롯한 현대물과 많이 비교했다. 이것은 비교를 통해 과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심청전> 연구, 장애인 연구, 서발턴 연구, 능력주의 등 여러 각도에서 역설하였다. 2장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가 잘 드러난 영화 <코다>를 분석하였다. 영화 <코다>의 청각장애인 부모와 비장애인 딸과 <심청전>의 심학규와 심청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비장애인 보호자는 흔히 장애인의 ‘무능’을,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보호자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3장에서는

* 이 논문의 게재료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지원 받았음.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교수

보호자로서의 심청이 효녀가 아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여기는 과도한 보호자임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보호자의 과잉보호가 장애인의 자립을 방해하고 장애인을 더욱 무능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점에서 희생을 다시 보고, 심청이 황후가 되고 심학규도 눈을 뜬 결말의 해피엔딩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자의 환상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상기 내용을 요약하고, <심청전>과 영화 <코다>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특히 비장애인 보호자와 장애인의 속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핵심어 : 심청전, 코다, 장애인, 보호자, 희생, 환상

1. 연구의 필요성

심학규는 우리에게 심봉사로 더 친숙하다. 봉사란 요즘 말로 하면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도 정도가 다 다르다.¹⁾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빛이 보이는 사람, 아주 가까운 데는 보이는 사람 등등. 시각장애가 심해져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희귀병도 있다. 황반변성 같은 안과 질환도 심하면 실명에 이른다. 현대는 의학으로 그것을 수치화하고 원인을 알 수 있고 고치는 병도 있다. 전통시대에는 그렇게 세분화되지도 않았고 초근시란 말이 없었으니 그냥 다 봉사일 뿐이다.²⁾

<심청전>의 연구서는 물론 아주 많다.³⁾ 직접 관련된 학위논문만 130편, 소논문 250편이 넘는다. 필자가 <바리공주>와 <심청전>을 비교했던 것처럼, 관련 논문까지 치면 그 수는 배가 된다. <심청전>은 과거에도 현대에

1) 시각장애의 정의는 복지, 교육, 의학, 스포츠 등 그 목적에 따라 다르다. 당연히 전맹과 저시력은 구분되며,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등급을 나누고 있다.(한국운동재활학회, 『운동재활관리학』, 고문사, 2013, 197면.)

2) 장애인의 옛 이름과 부정적 시각에 관해서는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視線) :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古典文學研究』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 논문은 아주 많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 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도 인기 있는 콘텐츠였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인기 있는 소설이었고, 이후 각종 연극, 뮤지컬 등의 소재가 되다가⁴⁾ 교과서에도 계속 실리고 대표적인 전래 동화로 지금도 전승된다. 심지어 21세기에는 심학규를 눈 먼 무림의 고수로 만들어 딸을 구하는 아버지로 재탄생시킨 웹툰까지 나왔다.⁵⁾

그런데 이 글은 심학규와 심청의 관계를 장애인과 보호자,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다른 논문들과 다르다. 심봉사가 시각장애인이고 심청이 보호자란 사실에 주목한 연구는 별로 없다. 심학규가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은 심학규의 무능과 가난, 심청의 효를 돋보이게 하는 <심청전>의 전제 같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봉사’는 하나의 비유로 간주되었다.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에 주목한 것은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抵抗性』에서 ‘운명에 대한 저항형’으로 <심청전>을 언급하면서 심봉사가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에 주목한 연구 정도다.⁶⁾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심학규를 장애인이어서 미답지 못한 아버지로 주목한 드문 예가 있긴 한데,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도를 집중 분석하여 본고와는 아예 다르다.⁷⁾

한국 역사 속의 장애인에 관한 책도 있다. 한국의 역사 기록에서 장애인 관련 기록을 여러 문헌에서 찾아냈다. 장애인 명칭이 과거에는 독질, 폐질, 잔질로 불렸다.⁸⁾ 그리고 왕족, 관료, 학자, 예술가, 기타 인물로 나누어 장애인들을 찾아냈는데, 그 중 유독 시각장애인이 많았다.

그런데 과거와 현대의 차이인지 납득이 안 되기도 한다. 세종을 시각장애로 본 것은 아직 안경이 들어오지 않은 때라 초고도 근시를 모두 시각장애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싶다.⁹⁾ 요컨대, 현대의 명칭을 무차별적으로 과거에 적용한 듯하다. 시각장애가 대표적이다.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4) 김현선, 『심봉사 생애의 재구성 and 아버지의 길 찾기』, 『우리文學硏究』 58, 우리문화회, 2018, 54면.

5) 위의 논문.

6) 김창신,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抵抗性』, 『세계한국어문학』 3, 세계한국어문화회, 2010.

7) 강미정, 『영화 아이 엠 샘과의 비교를 통해 본 심청가의 현대적 의미』, 『우리文學硏究』 48, 우리문화회, 2015.

8)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 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글항아리, 2011, 33~38면. 매우 심한 중병을 뜻하는 독질, 고칠 수 없는 병인 폐질, 몸에 병이 남아있다는 뜻의 잔질로 구분되어 조선 후기 장애에도 등급이 있었다. 그것은 군역과 직결된 문제였다.(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 161~164면.)

9) 정창권, 앞의 책, 354면.

또한 전통 시대에는 장애인이 지금보다 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편견이라고 했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다. 예컨대 최초의 시각장애인 단체랄 수 있는 명통시를 예로 들어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정승이라 할지라도 시각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¹⁰⁾ 한 것은 지나친 일반화다. 그 시각장애인이 당시 어떤 이유로 특히 권력이 있었는지 모른다. 신분 차이가 큰 힘을 갖던 시대였으니 그랬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록도 조선 초기가 다수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각기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홍대용이나¹¹⁾ 최한기 등 조선 후기 자료는 장애인 복지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다수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부분적이라도 직업을 갖게 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 그것도 시각장애인이 대부분이지만, 그만큼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때문에 장애인 자립에 직업은 거의 필수적이다.

필자는 비장애인은 잘 모르는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 시점에서 <심청전>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자들 중 장애인은 대표적이다. 흔히 인권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실상 시혜, 즉 “선의와 우월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인권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장애우란 단어가 그런 예다. 그래서 종종 서발턴 재현에 실패하지만, “말하고 쓰고 재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할 일은 “서발턴에게 말을 거는 것뿐이다.”¹³⁾

불경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정진한 결과로 나온다. 10대 제자 중 하나인 아나울의 예에서 보듯, 부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으로 받아들인다.¹⁴⁾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장애인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의외로 장애 자체보다 장애에 무지한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10) 위의 책, 189면.

11) 위의 책, 109면.

12) 위의 책, 225~283면. 이 책 5장에서 장애인 직업사의 기록들을 모아두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직업을 가진 예로 안경장이를 든 것처럼,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

13) 드루실라 코넬, 태혜숙 옮김, 『인권의 윤리적 궁정: 가야트리 스피박의 개입』,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그린비, 2013, 175~196면).

14) 방귀희·김현식 공저, 『(영화와 예술로 보는)장애인복지』, 양서원, 2011, 332~335면.

보는 것은 TV나 영화를 통해서일 뿐이다.¹⁵⁾ 그래서 어려서부터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장애와 비장애의 전통적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¹⁶⁾ 하지만 한국인의 일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 논리에 따르면 장애인은 ‘열등한’ 존재일 뿐이다. 이른바 ‘공정성 내전’이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고시생 등 사이에 널리 퍼졌다. 모 대학가에서는 ‘비양심 민폐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판을 치고, 소수자·약자 배려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주장, 즉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가 들끓었다.¹⁷⁾ 능력주의가 교육이나 취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장애인이 일반시민과 더불어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 보호의 동향은 사회에서 격리된 장애인 수용시설을 제거하고,¹⁸⁾ 중증장애인 외에는 가능한 가정에서 보살핀다는 것이다.¹⁹⁾ 영화 <노팅힐>에 나오는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이나 TV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오는 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해너로, 시장에서, 제 몫을 하고 살듯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나온 만큼 장애인과 보호자, 제3자의 관계가 중요해졌다.

그것이 ‘더 이상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할 정도인 스웨덴에서 인식전환을 위한 사회운동이 더 시급하다고 본 이유고, 그 결과 사회적 분위기도 반전했다.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에도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확산되어 있었고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배려와 보장에 더 힘썼다.²⁰⁾

15) 특히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TV드라마 작가들이 있다. 노희경이 대표적이다. 그의 드라마에는 일찍부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 주요인물로 등장했다.

16) 정광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37~38면.

17) 박권일, 『능력주의 해부를 위한 네 가지 질문』, 『능력주의와 불평등』(박권일 외), 교육공동체 벗, 2020, 135~145면.

18) 장애인은 무조건 격리가 최고라 여기던 때가 있었다.

1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의 사회통합 : 장애인 복지이념, 환경, 고용』,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2, 16~19면.

20) 위의 책, 37~54면.

이 글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에 집중해 <심청전>을 분석한다. 장애인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연구대상이 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심청전>에 많은 이본이 있고 이본마다 주인공이나 주제가 다르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정하영이 역주한, 심봉사의 역할이 더 강조된 완판 71장본을 주로 이용했다.²¹⁾

II.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영화 <코다> 분석

2022 아카데미 작품상, 남우조연상의 청각장애인 수상과 시상자 한국인 윤여정의 수화로 더욱 유명해진 영화 <코다>(2021)는 영화 <미라클 벨리에>(2015)의 리메이크작이다. ‘코다 프라이드’라는 말이 있다. 영화의 제목인 코다란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 즉 청각장애인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를 뜻하는 말이다. 영화 <코다>도 설정이 같다.

영화 <코다>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가 다 청각장애가 있고 주인공만 비장애인인데 노래를 아주 잘한다. 세상과의 소통을 비장애인 딸이 혼자 책임지고 있다. 병원에서 부모의 성적인 상담도 비장애인 10대 딸의 몫이고, 인터뷰를 비롯한 온갖 비장애인을 상대하는 통역은 이 딸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늘 피곤해 학교에서 즐기고 시간이 없다. 자신의 노래 재능을 알아보고 과외를 자청한 선생과의 약속에 번번이 늦어 결국 오디션을 포기한다. 청각장애인 부모는 그런 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반면 청각장애 오빠는 여동생을 대신할 통역인을 따로 구하지 않는 상황에 줄곧 불만이다.

청각장애 오빠가 가족을 위해 노래와 대학을 포기한 동생에게 어느 날 말한다. ‘네가 곁에 있으면 부모님은 점점 더 네게 기댈 거다. 어린애가 아니다. 무력하지 않다. 넌 우리가 바보로 보이는 게 싫을 거다. 노래 배우러 떠나라. 너 태어나기 전에도 우린 잘 살았다.’ 대충 그런 말이었다. 아마 장애인과 보호자 가족의 관계를 극명하게 잘 표현한 장면일 것이다. 결

21) 이 책은 완판 71장본 다가서포본을 저본으로 삼았다.(정하영 역주, 『심청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국 딸은 노래 오디션을 보고 대학에 진학하여 집을 떠난다.

장애인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물론 많다. 그렇다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시중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장애인에게는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혼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일이 있다. 할 수 있지만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많다. 힘이 들어서, 귀찮아서, 위험하다 여겨서, 비장애인보다 느려서, 굳이 내가 안 해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 있는 비장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등등.

영화 <코다>에서 비장애인 보호자인 딸이 답답함에 절근한 날, 청각장애 아버지와 오빠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배에서 해경의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 비장애인이 동승해도 어선의 규칙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아는 비장애인이 - 주인공 같은 - 있어야 다들 안심한다. 규칙을 익히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는 아주 쉽다. 매사에 장애인을 위한다지만, 실상은 장애인의 불편함보다 비장애인의 안심이 더 중요한 세상이다. 비장애인이 주인공 세상이니 일견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다 보면 장애인 스스로도, 비장애인 보호자도 습관이 되고 으레 그래야 한다고 여긴다.²²⁾ 그러다보면 장애인은 더욱 무능해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잊고 자기 세계에 갇힌다. 영화 <코다>의 어머니가 이를 대변한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같은 청각장애인뿐이다. 어머니는 비장애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여긴다. 물론 처음부터 자연스러울 수는 없다. 서로 서서히 익숙해질 뿐이다. 심지어 어머니는 딸을 낳았을 때 그녀가 청각장애인이길 바랐다. 자신과 다르면 소통이 안 될까봐.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은 편의점에도 가고 혼자 옷도 골라 입는다. 반복의 결과다. 그래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더 생겼다고 한다. 이 사람은 가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는다. 필자도 다른 유튜브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는 그런 줄 알았다. 그만큼 시선 처리 등을 많이 연습한 결과였다. 그에 따르면, 대학에서 팀플을 할 때 장애인은 으레 못한다

22) 현대 재활병원에서도 보호자는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보조해야 하는데 일상생활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이상호 외, 『재활심리학개론』(제3판), 에듀팩토리, 2018, 107면.)

고 여겨서 배제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자기가 처음부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밝혔는데도,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선입관이 우리나라는 아주 심하다. 장애인과 장애우, 장애자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은 한 교수가 장애우란 단어를 써 놀랐다고 한다. 하긴 지하주차장에 ‘장애우 전용구간’이 아직도 버젓이 쓰여 있는 곳이 있다.

장애인이 되는 순간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죽은 사람, 또는 어린애 취급을 한다. 그러다 보면 장애인 스스로도, 비장애인 보호자도 습관이 된다. 그렇게 장애인의 무능은 악순환 된다. 인기 유튜버 <위라클>은 사고로 척수를 잃고도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 그런지 혼자 웬만한 일은 다 한다. 자동차 운전은 물론이고 외국 여행을 한다.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고 울퉁불퉁한 길도 휠라이로 간다. 처음에는 휠체어로 10m만 가도 힘들었는데 나중엔 10km도 혼자 간다.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덕이라고 한다. 장애인과 어린애의 공통점은 반복에 있다. 삶에 길들어지면 그 정도면 됐다고 착각하기 마련이다. 장애인과 보호자도 제3자도 마찬가지다.

영화 <코다>의 비장애인 딸처럼, 보호자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무능을 당연시하고 비장애인을 상대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단정한다. 청각장애 오빠가 비장애인을 상대해 생선 값을 흥정하겠다고 하자 비장애인 여동생은 말이 안 된다 여긴다. 유튜버 <위라클>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날 쳐다보지 않아요. 계산은 내가 하는데 왜 옆 사람만 봐?” 이처럼 장애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비장애인에게 의지한다.

III. 보호자로서의 심청과 장애인의 자립

현대 장애인 보호자는 가족일 수도 있고 활동보조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시설 종사자(치료사, 의사 등)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전통시대에는 장애인 보호자는 가족밖에 없다.²³⁾ 그래서 더욱 심학규는 아내와 딸

23) 조선에서 복지란 대체로 무엇에도 의지할 데 없는 극한 상황만을 배려한 것이었다. 국가는

에게 의지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학규의 아내와 딸, 즉 광씨 부인과 심청은 시각장애인 심학규의 ‘과도한’ 보호자이다.²⁴⁾ 그야말로 과잉보호를 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여긴다.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말이다.

“... 부친 모시옵기를 모친 겸 모시옵고 우리 부친 날 밋기를 아달 겸 밋사오니, 니가 부친 곳 안이시면 이제까지 자라쓰며, 니가 만일 업거디면 우리 부친 니문 희를 맞칠 기리 업사오며, 요조의 사정 서로 의지하여 니 몸이 맛도록 기리 모시려 호옵나니다.”²⁵⁾

이렇듯 심청이 장승상 댁에서 자기 수양딸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것도 아버지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광동서국본>에서는 제물이 되기로 결심한 심청을 만류하는 장승상 부인에게 “로친 두고 죽는 거시 이효상호”지만 이것이 “천명”이라고 말한다.²⁶⁾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영화 <코다>의 비장애인 딸, 즉 청각장애인 가족의 보호자를 자청해 오디션에 포기했던 주인공과 비슷하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광씨 부인과 심청은 부덕을 갖추고 이를 철저히 이행한 여성들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욕망에는 관심이 없다. 심학규와 이들의 관계는 인륜에 의한 위계적인 것이다.

“심봉사와 광씨, 심봉사와 심청의 관계는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이익을 초월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절대적인 인륜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인륜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숭고한 인생의 의의라고 광씨와 심청은 믿었으며, 다만 그 불가피한 수단으로 금전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 금전적 이익의 추구를 피로운 수단으로 생각하는 광씨나 심청과 즐거운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뺨덕어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²⁷⁾

가족과 친지, 심지어 마을에다 장애인의 구호를 떠넘겼다.(신동원, 앞의 책, 165~168면.)

24) 신동훈, 고전과출판연구모임,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 웅진지식하우스, 2010. 저자는 심청의 심리상태를 ‘강박적 책임’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김효현, 『부모화된 청소년을 위한 문학치료 사례연구』, 『문학치료연구』 5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도 참조할 것.

25) 정하영 역주, 앞의 책, 104면, 106면.

26)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 -감성적 포용과 전향의 맥락』, 『古小說研究』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84~85면.

특히 심청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희생으로 “가장 순수한 윤리의 영웅”이 된다.²⁸⁾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을 과잉보호하는 보호자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여기는 것은 대부분 장애인 보호자의 마음이다. 그런 심청의 과잉보호가 심봉사를 더욱 무능하게 만들었다.

“이러 처로 인통하다가 풀쳐 심각하되, ‘사자는 불가부성이라, 흐릴 업건이와 이 자식이나 잘 키여 니리라.’ 하고 어린아히 잇난 집을 차례로 무리 동영져슬 어더 떡일 제기, 눈 어두어 보든 못하고, 귀는 발가 눈치로 간음하고 안자다가 아참 날 도들 적의 우물가의 들니난 소리 얼는 듯고 나서면서, ‘여보시오 마누리님, 여보 아씨님네, 이 자식 져슬 좀 먹여 주오. 날노 본들 엇지 하며, 우리 마누리 사러슬 제 인심으로 심각하들 차마 엇지 팔세하며, 어미 업난 어린 거신들 엇지 안이 불상하오. 덕 집의 귀하신 아기 먹이고 나문 져 혼 통 먹여 주오.’”²⁹⁾

이것은 심봉사의 젓동냥 부분이다. 아내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심봉사는 젓먹이 어린 딸로 인해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시각장애로 인해 더 불편해진 하지만, 장애에 홀아비니 불쌍함이 더해 젓동냥이 더 쉬웠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 시기에 심학규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아버지로서 아예 무능하지는 않았다. 혼자 힘으로 세상 밖에 선 것이다. 심청이 동냥을 시작하면서 심봉사는 방 안에 들어앉아 세상에서 고립되기 시작했다.³⁰⁾

현대의 보호자 중에 가끔은 자기가 죽고 없을 때를 대비하기도 한다. 영화 <채비>에는 죽음을 앞둔 보호자 엄마가 발달장애인에게 직장을 구해주고 이런저런 간단한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죽기 직전이 아니라, 진작 그랬어야 한다.

심청은 그마저 안 한다. 심청이 아버지의 자립을 정말 원했다면, 정안수 떠놓고 기도할 시간에 자기가 없는 때를 대비해 하나라도 아버지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기가 옆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자립을 위한 일을 전혀 안 하다가, 인신공양 후에 어찌 되겠지 하는 건 무책임하다. 심청은 자기가 없으

27) 조동일,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심청전 연구』(최동현·유영대 편), 태학사, 1999, 298면.

28) 위의 논문, 291면.

29) 정하영 역주, 앞의 책, 94면, 96면.

30) 신동훈, 앞의 책, 143면.

면 누가 밥을 하고 옷을 짓나, 빨래는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한다.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칠 생각은 전혀 안 한다. 자주 가는 길에 어떤 장애 물이 - 심봉사가 빠진 개울 같은 - 있는지 가르치지 않는다.

장애인을 더욱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보호자의 과잉보호임은 현대의 대부분 ‘착한’ 제3자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장애에는 무지하니 일견 당연하다. 유튜버 <위라클>에 따르면, 경산길에서 ‘착한’ 제3자들은 흔히 뒤에서 ‘말도 없이’ 휠체어를 잡아주려 하는데 그게 서로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그럴 때는 도와줄까 묻는 게 낫다고 한다.³¹⁾ 무조건 도와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한다.

장애인 전문가들은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가 아닌 스스로의 자립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만족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³²⁾ 재활도 그래서 한다. 장애는 더 이상 특별한 의료진단의 대상이 아니다.³³⁾ 비장애인들은 신체적 기능 회복이 재활이라 여기기 쉽지만 영구장애를 가진 중도장애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재활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³⁴⁾이라고 했다. 신체적 기능 회복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장애인의 자립이 중요하다 해도, 자립이 물론 쉽지는 않다. 본인의 노력은 물론 보호자의 마음가짐이 긴요하다. 장애인의 자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자의 포기, 체념이 더 문제이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가르치면 처음에는 서툴러도 스스로 요령을 터득한다. 비장애인의 속도나 능숙함에 못 따라가니, 당연히 비장애인의 성에 차지 않는다. 장애인도 그걸 아니까 쉽게 포기하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다. 악순환이다. 고기를 대신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건 장애인에게도 해당한다. 심학규 같은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는 못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 스스로 할

31) 이상호 외, 앞의 책, 109면. 장애인을 돕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니 망설일 필요는 없지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한다. 말없이 갑자기 휠체어나 목발을 잡으면 균형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와주겠다는 의사 표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32) 위의 책, 110면.

33)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앞의 책, 30면.

34) 한국복지연구원, 『사회복지: 문제와 요점정리』, 이론과실천, 1994, 300면. 305페이지 7번 문항에서 다시 거론하고 있다.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흔히 장애인의 불굴의 노력을 강조하는 영화들이 많다.³⁵⁾ 그런데 그 주변에는 꼭 그들을 비장애인 취급하는 사람이 나온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말이다. 그들은 과잉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기보다 자립의 방법을 알려준다.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물론 자연스런 반응이다. 문제는 과잉보호이고, 그 기준이 장애인도 비장애인으로 저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 누구는 그 정도 보호는 당연하다 여기고, 또 누구는 불필요하다 여긴다.³⁶⁾

장애인 올림픽의 시초를 다룬 영화 <더 베스트 오브 맨>에서는 전쟁으로 신체가 마비된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만’ 하는 간호사와 의사가, 포기를 모르는 괴짜 의사와 대립한다. 그 괴짜 의사는 남들이 시체 취급하는³⁷⁾ 환자들을 휠체어에 앉히고³⁸⁾ 각종 운동에 도전하게 한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창피해하지 말라고 장애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설득한다. 도와 달라 말하기 전에는 휠체어가 넘어져도 그냥 지나간다. 장애인은 도와 달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비장애인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과씨 부인과 심청은 보호자로서 선의에서 비롯된 착각으로 심봉사를 대신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질 뿐이었다. 자립을 돕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심학규가 심청이 아기였을 때도, 즉 심청이 어린 나이에 동양하기 전에도, 세상 밖에서 살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자유롭게.³⁹⁾

35) 최성수, 『영화 속 장애인 이야기』, 이화, 2006. 이 책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쓴 것이라 더 그럴 수 있다.

36) 이상호 외, 앞의 책, 109면. 어떤 장애인은 항상 도움을 즐겁게 받지만 어떤 장애인은 필요할 때만 도움 받기를 더 원한다.

37) 이 영화 초반에는 신체가 마비된 환자들을 관으로 이송하고 진통제로 목숨만 연장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38)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나 앉으면 어지럽고 토하기 일쑤다. 이 영화는 이런 면에서도 사실적이다.

39) 이 점에서 심봉사가 자기중심적인 뺨덕어미와 있을 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유보 상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IV. 희생 다시보기와 결말의 환상

희생은 물론 아름답다. 그것이 효의 외피를 쓰고 있으면 전통 시대에 그것은 거의 절대적이었다.⁴⁰⁾ 그래서 ‘희생 효’ 설화도 많이 전승된다. 부모의 병을 낫게 하려고 자신의 어린 아들을 삶아 부모에게 약으로 드리는 ‘동자삼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심청이 택한 인신공양도 ‘효란 무엇인가를 근원적으로 생각해보게 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인 설정을 하고 있다. 물론 소설이나 설화 같은 고전에서 심청의 인신공양을 비롯한 이른바 모든 ‘희생 효’가 애초 효심에서 시작되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효는 공자가 말한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차이가 없는 ‘반쪽짜리 효’에 불과하다.⁴¹⁾

희생이란 현대와 달리 본래 종교와 제의적 맥락에서 쓰이던 말이었다. 즉 ‘변영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신에게 바침으로써 그로부터 약속과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제의적 행위’인 것이다.⁴²⁾ 말하자면 희생도 시대와 문화에 따른 구성물이고, 효 역시 하나의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조선후기에 일반화된 효 이데올로기는 일방적인 한쪽의 희생을 요구한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말하면, 보호자(희생하는 자)가 너무 희생하지 않아야 장애인(희생을 받는 자)도 보호자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호자가 장애인에게 너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면 언젠가는 서로가 불행해진다. 끝에 복을 받는 ‘희생 효’ 설화나 <심청전>이 아닌 현실에서는 그렇다.

심학규가 공양미 삼백석을 덩석 약속한 것을 두고 그의 경솔함을 말하는 연구가 많지만,⁴³⁾ 그 정황을 봐야 하고,⁴⁴⁾ 심학규의 가장 큰 욕망이 눈을

40) 전통 시대와 달리 현대 우리 사회나 외국 문화권에서 희생 효는 오히려 청자에게 충격적이며 심리적 불편함과 거부감을 준다. 따라서 의무나 책임이 아닌, 사랑과 친애의 감정으로서의 효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전주희, 『호행 설화에서 나타난 불편한 ‘희생’의 의미와 한국인의 ‘효’ 의식 재고』, 『口碑文學研究』 64, 한국구비문학학회, 2022, 41면·66면)

41)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論語, 爲政篇)

42) 전주희, 앞의 논문, 49면.

43) 서경희, 『심청전에 나타난 가장의 표상과 역설적 실체』, 『東方學』 3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4.

뜨는 것임은 여기서도 분명하다.⁴⁵⁾ 자신이 시각장애인인 것이 극빈이나 양육을 비롯한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 여겼을 것이다. 또한 눈을 뜬다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세상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심청은 아버지가 눈을 뜨고, 그래서 자신이 실질적 가장의 무게를 벗고, 극빈에서 벗어나고, 몰락했을망정 양반의 체면을 세우고, 평범하게 시집가서 자식 낳고 사는 것을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맹인이니 모든 것이 물거품일 수밖에 없다. 심청의 욕망이 곧 심학규의 욕망이다. 하지만 인신공양을 앞두고 살고 싶다는 욕망은 심청 자신의 것이다.⁴⁶⁾

심청은 맹인잔치를⁴⁷⁾ 열면서도 기러기에게 소식을 전하려 할 뿐 예상보다 소극적이다. 이전에는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끔찍했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는 않다.⁴⁸⁾ 심지어 어떤 이본에서는 망설인다.⁴⁹⁾ 자신의 인신공양으로 아버지가 눈을 떴으리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맹인에 가난한 것이 싫어서일 것이다. 딸이 아버지에게 철저히 종속되었던 전통 시대니까 더욱 그랬을 것이다. 심학규는 어느 모로 보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전혀 아니었다. 문헌상의 기록을 보면, 아버지가 권세가 있으면 딸은 젊은 나이에 죽어서도 저절로 유명해진다.⁵⁰⁾ 그런 시대였다.

<심청전>은 ‘이효상효(以孝傷孝)’⁵¹⁾, 즉 ‘도덕적 딜레마’로 진즉부터 말

44) 정출현, 『심청전의 민중정서와 그 형상화 방식』, 『심청전 연구』(최동현·유영대 편), 태학사, 1999, 324면.

45) 반면, 장애 관념에서 보면, 진정 눈을 떠야 할 사람은 심청이라는 주장도 있다.(박성애, 『아동서사문학의 장애담론과 소통 가능성』,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6,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이에 동의하며 자세한 논의는 다른 지면을 빌려야겠다.

46) 심청이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곧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최기숙, 앞의 논문, 96면.)

47) 조선시대에는 복지의 차원에서 나라에서 잔치를 여는 전통이 존재했다. 그러나 기로연이나 양로연은 관직을 지냈거나 초시라도 합격한 일부 양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맹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신동원, 앞의 책, 165~168면.)

48) 신동훈은 황후가 된 심청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되는 ‘부모화’ 과정을 지나 드디어 부모로부터 독립해 성인이 되어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을 챙기기 시작했다고 보았다.(신동훈, 앞의 책, 147면.)

49) 강미정, 앞의 논문, 128면.

50) 김수항의 딸이자 김창협이 누이동생인 안동 김씨(1665~1680)가 대표적이다.(이경하, 『17세기 사족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51) 성현경, 『심청은 효녀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장덕순 외), 집문당, 1986. 이 논문은 “『심청은 효녀인가?』하는 물음은 곧 『심청은 불효녀인가?』하는 물음과 맞물려 있다.”로 시작해, 완관 71장본을 토대로 김우종이 ‘以孝喪孝’를 말한 논문을 비판하였다. 그 논문에서 불효의

이 많았다.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삼백석에 인신공양을 자청한 것은 천하의 효이면서 불효이기도 했다. 인신공양은 말만 그럴듯할 뿐 실상은 인신매매, 심하게 말하면 ‘살인’이라고 했다.⁵²⁾

그런데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심학규와 보호자로서의 심청의 관계로 보면, ‘이효상효(以孝傷孝)’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인신공양을 자청한 심청의 심정은 오랜 세월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보호자, 즉 ‘다 그만두고 싶은’ 장애인 보호자의 마음과 유사하다. 평소 심청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여겼기에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든다. 과도한 책임감이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게 한다. ‘희생 효’라고 아무리 포장해도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심청의 희생은 자살일 뿐이다. 실제로 현대에는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과 보호자가 동반 자살⁵³⁾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그래서 더욱 장애인의 자립이 중요하다. 보호자에게도 ‘내가 없어도 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서로가 자유롭고 행복하다.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 황후가 되고 아버지도 눈을 뜬 결말의 해피엔딩은 <홍부전>, <별주부전> 등 고전소설,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 흔한 환상과 관련이 있으며, 장애인과 같은 세상의 약자들에게는 꿈에서나 허락된 환상이다. <심청전>의 “남만적 결구가 갖는 현실적 토대”는 팍팍한 민중의 현실이라고 했다. “모든 맹인들이 눈을 떴다는 결말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민중의 염원에 대한 소설적 응답이 아니겠는가.”⁵⁴⁾ 장애인 영화에 환상이 많은 건 아마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환상은 요컨대 장애인과 보호자의 바람이 집약된 것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잠수종과 나비>에서 한 쪽 눈을 제외한 전신 마비 환자는 종종 환상을 통해 장애에 갇힌 육체에서 자유로워진다. 또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에도 코끼리가 등장하는 환상 신이 나온다.

근거로 ‘身體髮膚 受之父母 敢焉毀傷’이라고 하는 『孝經』의 문구를 들었는데, 효자 혹은 효녀가 자신의 신체의 일부, 예컨대 손가락을 절단하여 부모를 살린 이야기가 많다는 것, 그 논문의 밑바닥에 ‘천상계’를 부인하려 드는 현대인의 사고체계가 자리한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以孝喪孝’가 ‘以大孝喪小孝’라고 주장하였다.

52)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로서의 제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0.

53)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 ‘동반 자살’이 잘못된 표현이긴 하다.

54) 정출현, 앞의 논문, 337면.

이 영화에서 “공주는 환상을 통해 단절을 초월한다.” 단절이란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이다.⁵⁵⁾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가 제멋대로인 상태. 영화 <매직 오브 벨 아일>에서도 휠체어 신세의 노작가가 사랑을 꿈꿀 때는 환상 속에서 춤을 춘다. 다른 영역에서는 지극히 현실에 충실한데 말이다. 벨 아일은 지명이다.

노래 <빵과 장미>는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을 대표하는데, 그 주제는 장애인에게도 해당된다. 장애인도 빵 뿐만 아니라 장미가 필요하다. 재활을 통한 신체적 기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것이 최종 목표일 수 없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에 집중해 <심청전>을 분석했다. 판소리계 고전소설 <심청전>에 나타난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를 집중 분석하기 위해, 영화 <코다>를 비롯한 현대물과 많이 비교했다. 이것은 과거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과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심학규와 분화된 <코다>의 세 장애인처럼, 현대물이 때로는 과거 작품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자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심청전>은 소설로 판소리로 비교적 접근이 쉬운 대중적인 고전 창작물이고, 영화 <코다>는 현대 창작물이어서 둘을 선택했다. 둘은 현실성과 비현실성 같은 결말의 차이가 부각되기 쉽지만, 비장애인 보호자와 장애인의 속성상 공통점이 많다.

<코다>와 <심청전>의 차이에서 ‘환상의 개입 여부’는 부차적이며, 이를 비롯한 차이점은 대부분 시대의 차이에 기인한다. 딸들의 최종 선택에서 <코다>에서는 자신의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심청전>에서는 효란 이름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감내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차이점이다. 또한 장애인의 차이점인 부의 최종 선택이 <코다>에서는 딸의 자유를 격려하고,

55) 송준, 『아웃사이더를 위한 변명 : 송준의 영화이야기 2000~2004』, 심산, 2004, 86면.

<심청전>에서는 딸의 ‘이효상효’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공통점이 있다. 비장애인의 공통점은 비장애인 딸들의 ‘자발적’ 희생에 의존해 가족이 유지된다고 믿는 점, 그리고 의존적이면서 독립적인 장애인의 속성, 즉 양면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만 <심청전>에서는 부의 양면적 묘사로 일원화되었다면, <코다>에서는 부의 양면적 성향, 모의 의존적 성향, 오빠의 독립적 성향으로 삼 분화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심봉사에게서 보듯, 의존적이면서 독립적인 장애인의 양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3장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자 모두에게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무능’을,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 모두 보호자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또한 보호자로서의 심청처럼, 보호자의 과잉보호가 장애인의 자립을 방해하고 장애인을 더욱 무능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4장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점에서 희생을 다시 보고, 심청이 황후가 되고 심학규도 눈을 뜬 결말의 해피엔딩을 장애인과 보호자의 환상으로 보았다.

환상 없이 너무 현실적으로만 그리면 장애인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은 발달장애인 자식을 둔 엄마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보여준다. 그들은 그 혼한 학교도 맘대로 못 보내 두세 시간씩 걸리는 특수학교에 보내고 공청회에서 무릎을 꿇는다. 일반 학교를 보내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것이 진짜 극복인데 그게 쉽지 않다. 장애인과 보호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럴 것이다. 현실을 그린 영화 <어둠 속의 댄서>,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제8요일>에서 각각 주인공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끝에 다 죽었다.

이 글의 논의에서 중증의 장애인은 거의 소외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거기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훨씬 클지 모른다. 그들이야말로 능력주의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열등한’ 존재,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진짜 서발턴일지 모른다.

참고문헌

1. 자료

정하영 역주, 『심청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2. 단행본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지음,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태혜숙 옮김, 『서발
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박권일 외, 『능력주의와 불평등』, 교육공동체 벗, 2020.

방귀희·김현식 공저, 『(영화와 예술로 보는)장애인복지』, 양서원, 2011.

송준, 『아웃사이더를 위한 변명 : 송준의 영화이야기 2000~2004』, 심산, 2004.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

신동훈, 고전과출판연구모임,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 웅진지식하우스, 2010.

이상호 외, 『재활심리학개론』(제3판), 에듀팩토리, 2018.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정광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 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글항아리,
2011.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최성수, 『영화 속 장애인 이야기』, 이화, 2006.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 : 문제와 요점정리』, 이론과실천, 1994.

한국운동재활학회, 『운동재활관리학』, 고문사, 2013.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의 사회통합 : 장애인 복지이념, 환경, 고용』,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1992.

3. 논문

강미정, 『영화 아이 엠 샘과의 비교를 통해 본 심청가의 현대적 의미』, 『우리文學研究』
48, 우리문학회, 2015, 115~135면.

김장신, 『판소리계 小說에 나타난 抵抗性』, 『세계한국어문학』 3,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69~197면.

김효현, 『부모화된 청소년을 위한 문학치료 사례연구』, 『문학치료연구』 53, 한국문학
치료학회, 2019, 79~132면.

- 김현선, 『심봉사 생애의 재구성과 아버지의 길 찾기』, 『우리文學研究』 58, 우리문화회, 2018, 53~78면.
-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視線) :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古典文學研究』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면.
- 박성애, 『아동서사문학의 장애담론과 소통 가능성』,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6, 한국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143~171면.
- 서경희, 『심청전에 나타난 가장의 표상과 역설적 실체』, 『東方學』 3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4, 33~67면.
-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의’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35~60면.
- 전주희, 『효행 설화에서 나타난 불편한 ‘희생’의 의미와 한국인의 ‘효’ 의식 재고』, 『口碑文學研究』 64, 한국구비문학학회, 2022, 39~73면.
-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 -감성적 포용과 전향의 백락』, 『古小說 研究』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65~103면.

Shimcheongje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Guardians

Lee, Kyungha

This study analyzed *Shimcheongje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guardians. In chapter 1, the necessity of discuss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guardian was emphasized from various angles. In chapter 2, *Koda* which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guardian is analyzed. Like the deaf parents and non-disabled daughters of the movie *Koda*, non-disabled people often take the incompetence of the disabled and the sacrifice of the disabled and the guardians as time goes by. The daughter of the non-disabled daughter, who is responsible for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alone, gives up singing and college for her family and tries to sacrifice. In chapter 3, I have demonstrated that Shim Chung as a guardian is not a filial daughter but an excessive guardian who thinks that I should not be there. This overprotection of the caregivers hinders the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and makes the disabled more incompetent. In Chapter 4, I saw the sacrifice agai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abled and the guardian, and I saw the happy ending of the ending that Shim Chung became the empress and Shim Hak-gyu opened his eyes as the illusion of the disabled and the guardian.

Keywords: *Shimcheongjeon*, Disabled, Protector, *Koda*, Sacrifice, Fantasy

접수일자: 2022. 9. 30.
심사기간: 2022. 10. 1.~2022. 11. 10.
게재결정: 2022. 11. 10.